



環境廳

희귀 특정 야생동·식물 지정, 보호

환경청은 자연환경과 서식처의 파괴, 무분별한 남획 등에 의해 날로 희귀해지고 멸종위기를 맞고있는 야생동·식물을 보호하여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곤충류 33종, 양서·파충류 13종, 식물 31종 등 총 77종의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환경보전법 제9조에 의한 특정야생 동·식물로 지정하고 보호키로 하였다.

지난 20여년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곳곳에서 파괴되었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무분별한 포획·채취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생물종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예를들면 한국의 특산종인 붉은점 모시나비는 마구 채집되어 표본으로 제작한 후, 일본으로 밀반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개구리, 뱀 등은 약용 또는 보신용으로 남획되고 있고, 야생난초류는 일반시민의 취미

생활과 관련하여 마구 채취되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먹이사슬의 중간단계에 있는 생물종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하나 현재까지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환경청은 이러한 야생 곤충류, 양서·파충류등 동물류와 식물에 대하여 특정야생 동·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기 위해 환경청이 실시하는 자연생태계 전국조사결과와 일반문헌을 참고하여 남획·남채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특산종, 희귀종 등 학술적 가치가 큰 종, 보통종으로 개체수가 격감되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종, 약용·식용 등 건강식품으로 포획되어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종 등 모두 77종을 선정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종을 확정하여 관계부

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금년중 고시할 방침이다. 보호받게 되는 야생동·식물로서는 곤충에서 붉은점 모시나무, 사슴풍뎅이 등 33종, 양서·파충류에서 무당개구리, 두꺼비, 능구렁이, 도마뱀 등 13종, 식물에는 풍란, 끈끈이주걱, 금강초롱, 습다리(일명 에델바이스) 등 31종이 있다.

한편,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해 특정야생 동·식물로 지정·고시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허가 없이는 일철의 채취, 포획, 수출, 가공, 보관이 금지되며 만약 불법채취·포획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편집부>

* 문헌정보 *

全國環境放射能調査 (Environmental Radioactivity Survey Data in Korea) / Vol.19, 1987 / 한국에너지연구소 부설 원자력안전센터刊 *

※ 연재예정이던 기술상좌는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편집자>

점음으로 가꾸는 보람의 성숙사회